

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하향

민간소비 3.7% 증가...성장률 웃돌아

내년 성장률 수출 둔화로 2.3% 그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데다가 민간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7%보다 2.5%포인트(p)나 상향 조정했다.

◆KDI, 성장률 전망치 3.0→2.8% 하향

KDI는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0%보다는 0.2%p 높이를 낮췄다. 올해 투자 위축이 예상되지만, 경제회복에 따른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성장률 추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거라는 판단이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3.1%나 지난 2월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성장률 3.0%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월 전망치 3.0%보다도 낮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2.5%),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2.7%), 무디스(S&P·2.5%)나 국내 경제 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2.5%) 전망치보다는 높게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분기까지는 민간소비가 안 좋았던 대신 수출이 개선됐다면 2분기부터는 민간 소비는 개선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흐름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성장률 하향 전망과 관련해 "1분기 민간소비가 안 좋았던

측면이 반영됐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도 국내경제 하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인상된 점, 대외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부분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물가 4.2% 상승...14년 만에 최대 전망

부문별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1.7%에서 4.2%로 2.5%p 상향 조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면 2008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경기 회복세와 함께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는 올해 원유 도입 단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105달러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계산이 반영됐다.

근원물가는 공업제품 가격과 외식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3.1%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를 의미한다.

민간 소비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3.7% 증가를 보였다. 사회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출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 2.3%로 하락...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제약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2.8%보다) 하락한 2.3%로 전망된다.

다만 민간 소비는 3.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설비투자 105달러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계산이 반영됐다. /뉴시스

석유류·외식 등 올라 소비자물가 3.8% ↑

'심상찮은 인플레이션'...1분기 지역경제동향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분기 대비 3.8% 오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가 오르며 외식가격이 뛰며 물가는 모든 시도에서 3.3%~4.7% 상승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국 물가는 석유류, 외식 등이 올라 전년 동분기 대비 3.8% 상승했다. 분기별로 볼 때 상승 폭은 2011년 4분기 4.0% 오른 이후 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에 따라 석유류(22.5%)와 가공식품(5.3%)이 오름세를 보였고, 외식(6.1%)과 개인서비스(2.9%)도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한 점이 모든 지역의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는 다른 지표에 비해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제주(4.7%), 강원(4.5%), 경북(4.4%)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했다. 서울(3.3%), 부산(3.5%), 광주(3.6)는 상승 폭이 전국 평균보다 작았다. 소비와 연관된 소매 판매는 전문소매

점(8.8%)과 무점포소매(6.2%), 백화점(14.1%) 등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분기 대비 2.9% 상승했다.

제주(4.9%), 서울(3.7%), 부산(2.1%)은 면세점, 전문소매점, 백화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며, 충남(-2.4%), 전남(-2.3%), 광주(-2.2%)는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전국의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제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4.6% 상승했다. 광공업생산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나 지난해 6.9% 증가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 광공업생산에서 충북(10.2%), 세종(8.3%), 경기(7.3%)는 반도체·전자제품 등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대전(-10.3%), 경북(-6.4%), 울산(-1.7%)은 의료장비, 반도체·전자제품, 자동차·트레일러 등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복지(6.9%), 숙박·음식점(16.9%) 등의 생산이 늘어나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전국에서 4.1% 올랐다. /뉴시스

코스닥 1분기 영업이익

4조3천억...전년비26% ↑

올해 1분기 코스닥 상장사들이 실적 개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키트 관련 제약업종과 배터리, 반도체 등의 업종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8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1분기 결산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비교할 수 있는 1050개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2조 7668억원, 4조2833억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20.89%, 영업이익은 26.02% 늘어났다. 다만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에 그친 3조3277억원을 기록했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2조99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5%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27%포인트 오른 68.2%로 집계된 반면 매출액순이익률은 5.30%로 0.93%포인트 하락했다.

광양제철소 직원

포스코 명예의 전당 헌액



열연부 조영석 리더·제선부 양성모·후관부 최영일 주임.

회사 경쟁력 향상과 위상을 드높인 광양제철소 직원 3명이 포스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한시헌액 대상자로 3년간 그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게 된다.

광양제철소 열연부 조영석 리더는 1995년 3월 포스코에 입사한 이래 조립 기술개발을 통한 열연 제품의 품질·생산성·수익성을 증대해 지난달 29일 2022 포스코대상을 수상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각종 개혁과제와 공정 스마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원가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영석 리더는 "제철보급으로 시작한 포스코의 역사가 기업시민의 정신으로 이어지도록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 제선부 양성모 주임과 후관부 최영일 주임은 가족과 함께 각각 총 1만 시간이 넘는 봉사시간을 달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에서 모범을 보였다.



삼겹살 1인분, 2만원 시대 18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 가축 질병 등 악재로 삼겹살 가격이 급등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산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00g에 2816원으로, 한달 전보다 20% 올랐다. /뉴시스

광주·전남 4월 수입 급증...원자재 가격 급등·수출증가 원인

수입 전년동기 대비 32.7% 증가...유가상승도 한몫

지난 4월에 광주·전남지역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지역본부가 18일 제공한 '4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한 4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출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8억

1000억 달러에 그친 가운데 무역수지는 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억3000만 달러 줄었다.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5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광주·전남 수출이 88.9% 증가한데 따른 역기지 효과'로 분석됐다. 역기지 효과는 전년 혹은 직전 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만 감소해도

실적이 나빠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냉장고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전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32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상하이 가 장기 봉쇄되는 등의 영향으로 철강관 수출은 부진한 가운데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다. /권영민 기자

2030년 국내 전기차 144만대 생산...현대차·기아, 21조 투자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글로벌 미래 車산업 혁신 선도

현대자동차·기아 양사가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에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올해 35만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같은 해 144만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18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의 기아 오토랜드 화성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기아의 전기차 투자계획을 포함해 이 같은 양사의 국내 투자계획을 밝혔다.

144만대는 2030년 현대차·기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의 45%에 달하는 몰량이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23만대로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는 국내 전

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연구개발·인프라·연관산업 등의 선순환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분야에 투자하는 21조원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과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및 부품·선형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전기차 관련 다각도의 신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제휴 등에 활용된다.

우선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PBV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함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

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생산 혁신과 최적화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제조 혁신기술 연구개발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의 유연 생산 시스템,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형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한다.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한다.

전기차의 원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기반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고객 서비스 등 인프라 부문도 투자 항목이다.

해룡산단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공모

광양만권경제청, 입주기업 유치 활성화...부지 확보 총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해룡일반산업단지(2-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공모'를 18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해룡일반산업단지(2-2단계) 사업시행자(주대우건설) 지정 취소('22.04.20)에 따른 대체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개발면적은 60만8224㎡이며 ▲사업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

을 반영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을 국토부·산자부와 협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번 공모에 반영했다.

최근 산자부에서 발표한 광양경제청 핵심전략사업(양극재 생산 규모 확대, 전구체 공장 신규 유치, 지역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개발면적은 60만8224㎡이며 ▲사업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순천의 기자

5월 친환경농산물에 '유기농 양파'

식탁 위 불로초...영양·향 풍부, 껍질 뿌리까지 안심 섭취

전남도는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유기농 양파를 5월 대표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양파는 매운맛과 단맛이 있는 양념 채소로 찌개나 볶음, 국,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유기농 양파는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껍질부터 뿌리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일반 양파보다 향이 강하고 영양도 더욱 풍부하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이다. 무안의 농가 중에서도 강경석 씨는 유기농 양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강 씨는 작물 생산 중 발생하는 균과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용미생물(EM) 원액을 배양·유황과 함께 1주일 간격으로 작물에 뿌린다. 유용미생물 원액은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만든 친환경제제다. 과일 세척, 청소 등은 물론 식용으로 쓰일 정도로 안전하다.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양질의 황토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강 씨의 유기농 양파는 무안군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박종대 기자

한전KDN, 국제전기전력전시회서 주목

기업용 모바일 보안·전력·에너지 ICT 솔루션 4종 출품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공기업인 한전KDN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전력 전시회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KDN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과 보안·전력·에너지 ICT 솔루션 등 총 4종을 출품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인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해 전력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미래 트렌드 기술과 전기전력설비, 스마트그리드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전KDN은

'분산형전원 출력제어 단말장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풀(Full) 디지털 변전소용 송변전자동화장치', '기업용 모바일 보안 솔루션(MobiCal)' 등 4종의 솔루션을 전시 중이다.

이중 '분산형전원 출력제어 단말장치'는 기존의 전력계통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연계시키고,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선로의 전력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솔루션이다.

주요 기능으로 분산형 전원 연계점 전압이 규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제어하는 능동전압제어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주지호 기자